

2018.12.29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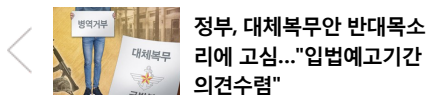


☀ 서울 -3°C


[최신기사](#)
[정치](#)
[북한](#)
[산업/경제](#)
[금융/증권](#)
[IT/과학](#)
[사회](#)
[전국](#)
[연예](#)
[문화](#)
[스포츠](#)
[세계](#)
[한민족](#)
[사람들](#)
[여행/축제](#)
[오피니언](#)
[비주류뉴스](#)

[영상] 산림 10ha-주택 1채 태우고...삼척 미로면 산불 13시간만에 진화

4시간 전



정부,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
리에 고심...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日방위성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핵심증거
공개 안해



공공 얼어붙은 주말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 좋음'

최신기사

[힉베를린] '늙지않는 기억' 가족 두고온 시리아 난민의 깊은 상실

송고시간 | 2018-02-25 08:45



첫번째 이야기...'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 다룬 유비호 작품 전시
독일의 강화되는 난민 규제...매달 가족 1천명만 입국 허용



베를린에서 전시 중인 '영원한 기억' [베를린=연합뉴스]

[※편집자 주 = 독일 수도 베를린을 두고 새롭고 개성이 강하다는 의미로 '힉(hip)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에서 몰려든 젊은 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한 도시에서 이젠 유럽의 새로운 IT 중심지, 정치 중심지로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탓인지 베를린의 전시·공연은 사회·정치·경제적 문제의식이 짙게 베인 게 특징입니다. 베를린의 다양한 전시·공연, 공간이라는 창(窓)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한두달에 한차례씩 접근해보겠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60대로 보이는 작품 속의 남자들은 주름이 파이기 시작했고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어딘가로 향하는 시선에는 그리움이 아련히 배어 있었다.

뭐하고 놀까? #홍 푸드 | 트래블 | 패션뷰티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팔면' 얼마? 🚗

추적60분 "탈모" 치료하는 신기술 개발..충격
절대 세차 사지마라' 연간 800만원 손해본다..충격!
육설과 신음소리내는 아이, 알고보니?
벅속"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빠져? 충격!!

원흥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는?
벅속"기름덩어리"이렇게나 빨리빠져? 충격!!
호주원정 한국여대생들, 재벌들과 모여서..충격!!
나는 자연인 "당뇨" 극복한 자연인 '화제'

핫뉴스

- "독도 자생 '섬초롱꽃' 학명에 '다케시마'가 들어있어..."
- "공중에서 식칼 날아와"...베트남 고층 아파트서 물...
- 美 '로또 광풍의 해' 저무는데...1조7천억원 잭팟 주...
- 이해찬, 장애인위원회 행사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 "17년 전 주운 70만원 양식의 가책...주인 찾아야"
- 광양서 50대 뺑소니 사망...14시간 만에 발견
- S.E.S 슈 '8억원 해외 원정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 야구방망이로 친구 집단폭행·돈 뺏은 무서운 20대들



핫뉴스 전체보기

빗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24시간 변동률 기준

<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
	모네로	54,400	+5.43%
	대시	92,400	+8.32%
	트론	22.6	+7.62%



※ 40세 이상 '임플란트' 희망자 모집

유비호 작가가 독일 베를린의 한국문화원에서 전시 중인 '영원한 기억' 속의 작품들이다.

작품 속의 8명의 남자는 모두 시리아 난민 출신이다.

이들의 실제 나이는 20~30대다. 특수 분장으로 시간을 뛰어넘은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작품화했다.

지난해부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유 작가는 독일 사회의 최대 난제인 난민 문제에서 착안했다.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난민을 보면서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떠올렸단다.

"이산가족처럼 난민이 가족과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두려움을 작품으로 담고 싶었다"는 게 작품의 출발점이었다.

모델이 된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있다. 특히 시리아에 가족이 남은 이들은 언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들은 가족 이야기에 대체로 입을 닫았다. 괜히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다.



베를린서 전시 중인 '영원한 기억' 작품과 실제모델 난민 [베를린=연합뉴스]

최근 전시장을 찾은 작품 속의 인물인 아마드 알 오데트 알라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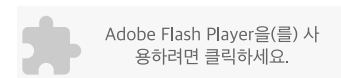
그는 내전이 할퀴고 간 시리아 남부 다라 출신이다. 2014년 브로커에게 7천 유로(약 928만 원)를 건네주고선 그리스로 건너왔다.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선 배가 그리스 해안가에 접근하지 못하자 바다로 뛰어 들었다. 200m 이상의 거리를 파도를 헤치는 사투 끝에 유럽 땅을 밟게 됐다.

2014년에 온 난민은 대부분 3년 거주증을 받았다. 알라도 그랬다.

3년 거주권을 받은 난민은 3개월 내로 가족 신청을 하면 해외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다.

난민이 더욱 몰려든 2015년부터는 상당수가 1년 거주권을 받았는데, 가족을 데려오는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통통TV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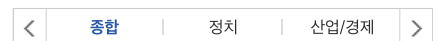


[통통리뷰]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유지컬 '광화문연가'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문대통령, 신병 '여친'과 영상통화... "장병 후대폰 사용 늘려야"
 - 2 집사부일체 이승기, SBS 연예대상 수상
 - 3 [영상] 윤종신도, 김윤아도, 싸이도... 술품에 잠긴 가요계
 - 4 외계인 침공?... 푸른색 변한 뉴욕 밤하늘, 알고보니 변압기
 - 5 [디지털스토리] "임신중인데 영수증 만지면 안된다고요?"
 - 6 광양서 50대 뺑소니 사망... 14시간 만에 발견(종합)
 - 7 주차 중 변속기 오조작한 60대, 자기 차에 치어 사망
- A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A 추적 60분 "입냄새" 해결책 밝혀져.. "충격"
- A "KBS 지긋지긋한 아토피" 치료법 밝혀져.. 충격!
- A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

하지만 알라는 1년 거주권을 받은 난민보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 시리아에 남기고 온 약혼녀를 데려올 길이 없어서다.

거주증을 받고 3개월 내로 가족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약혼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라는 매일 난민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다.

'이슬람 국가(IS)'가 격되된 이후에도 열강의 파워게임으로 아비규환이 계속되는 시리아의 소식도 불안감을 갖고 챙기고 있다.

약혼녀를 언제 떨어질 지 모르는 포탄의 그늘 속에 두고 싶지 않지만, 독일로 데려올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막혀있다.

알라는 "작품을 촬영할 때 혹시 분장한 것처럼 주름살이 파여가는데도 약혼녀와 함께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먹먹해졌다. 하지만 가급적 미래에 약혼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베를린서 전시중인 '영원한 기억'의 작가 유비호 [베를린=연합뉴스]

'난민 가족 재결합'은 지난해 9월 독일 총선 이후 정치·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이른바 '자메이카(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 연합-자유민주-녹색)' 연정 협상이 지난해 11월 끝내 결렬되며 독일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보수진영은 '난민 가족 재결합'에 대한 연기 및 까다로운 잣대 적용을 주장해온 반면, 진보진영은 즉각적인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달 초 기민·기사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 협상이 타결됐지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둔 난민 출신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 갔다.

애초 가족을 데려오는 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는 3월 15일이었다.

그러나 대연정 협상에선 이를 7월 말로 연기했다. 더구나 매달 1천 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 데려오려는 가족은 20만 명 전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알라는 "적어도 가족이 만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난민이 정치싸움의 희생양이 됐다. 처음엔 가족을 데려오는 규제 등이 없었는데, 점점 더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적60분 "탈모" 치료 신기술개발!



강하고 오래가려면 남성 '이것'만 해라

"PD수첩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 "충격"

벅속"기름덩어리"이렇게나 빨리배워? 충격!!

취준생 자취녀, 월세800만원에 초호화생활?!

"빛"값지마, 12월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원!!

벅속"기름덩어리"이렇게나 빨리배워? 충격!!

오늘의 주요 뉴스

더보기

< 종합 | 정치 | 산업/경제 >

- 정부,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입법예고기간 의견
- 지방위성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핵심증거 공개 안
- 공공 일터는 주말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 삼척 미로면 산불 13시간만에 진화...산림 10ha 주택 1채 불타
- 김용균 어머니 "회사가 비정규직 유린...바깥 때까지 함께 하
- 동장군 맹위 속 스키장·축제장 '복적'...유명산은 '한산'
- 휘발유가격 8주 연속 내림세...평균 1천300원대 진입
- "청년 첫직장 1년 일찍 구하면 초혼 0.28세 빨라져"
- [포토에세이] 되돌아본 2018 수요일서위..."우린 물려서지
- 2018년 마지막 주말 보내는 문대통령...새해 국정동력



나를 돌아보는 여행, 이천

경기도 이천은 흙이 좋아 예로부터 도자기의 명산지로..

카페창업 대신 뜨고있는 이 창업은?

'비염'으로 막힌코, 콧속에 '이것' 넣으니 땀!

입냄새, 피나는 잇몸병 고민해결! '이것' 무료체험

50세 이상 '임플란트' 비쌀필요 없습니다.

고맙다 말! 한화다이렉트 유병자실손보험

실손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고 묻거든.."

[※편집자 주 = '힉베를린' 두번째 이야기로 독일 연방정부 지원의 다문화 전시공간인 '세계문화의 집(HKW)'을 매개로 이민자 급증에 따른 문화통합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HKW'를 즐겨찾으시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이메일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시리아 이드리브서 피난 생활하는 난민 어린이의 발 [EPA=연합뉴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2/25 08:45 송고

야관문보다 좋은 '이것'.. 중년 남성들에게 입소문 화제!

빛 값지마 새정부 1인당 "1억 대출지원" 충격!!

친구차 탔더니 이렇게 있던데? 나만 몰랐어?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한국에서 직장인이 "한달에 1억 벌기" 실화!

조이&인포

더보기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팔면” 얼마?

고맙다 딸! 한화다이렉트 유병자실손보험

카페창업 대신 뜨고있는 이 창업은?!

카페창업은 지고 '이' 창업이 뜬다

'비염'으로 막힌코, 콧속에 '이것' 넣으니 땡!

아이디 (이메일)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AD

벧속"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빠져? 충격!!

"잠자리 머리방향"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충격!

"잠자리 머리방향"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충격!

항문 잘못 씻으면 항문가려움증,치질 생겨.."충격"

취준생 자취녀,월세800만원에 초호화생활?

항문 잘못 씻으면 항문가려움증,치질 생겨.."충격"

벧속"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빠져? 충격!!

여행/축제

더보기

'넉넉한 인심' 구례오일장과 숨은 맛집 2곳

"해변은 해맞이 축제중"...호텔업계, 황금돼지해 여행객 이벤트

새로운 세대를 위한뉴스스토리 위키트리

AD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충격"

대구 여고생 동창끼리,,6년간 감춰온 진실밝혀져..

추적60분,"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

취준생 자취녀,월세800만원에 초호화생활?

벧속"기름덩어리"이렇게나 빨리빠져? 충격!!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충격"

추적60분,"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

대구 여고생 동창끼리,,6년간 감춰온 진실밝혀져..

뭐하고 놀까? #홍 >

더보기

그때 그 시절의 맛, 한국의 백년가게 5탄

이런 공기 청정기 봤어? 이색 공기 청정기 5